추석 LTE 사용량 11% 예상… 이통3사, 비상근무 체제

SKT
트래픽 밀집지역 기지국 용량 증설
KT
고속도로 250여곳 집중관리 지정
LGU+
추석 네트워크 소통 비상체계 돌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통신 네트워크 품질 관리에 나섰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통화품질 집중 감시 체계에 돌입한다. SK텔레콤은 약 2200명의 네트워크 전문인력을 투입해 '특별 소통 상황실'도 운영한다.

SK텔레콤은 추석 당일인 24일 귀향·귀성객들의 미디어 시청이 대폭 늘어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사용량이 시간 당 최대 403TB(테라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평시 대비 11.3% 많은 수치로, 2GB 용량의 영화를 약 20만6000편 내려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1일에 고객들의 음성 및 데이터 접속이 몰려 평시 대비 접속 시도 횟수가 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휴 기간 평시 대비 T맵 사용량은 51.5%, 해외에서 국제 로밍을 이용하는 고객 수도 15% 늘어날 전망이다.

SK텔레콤 직원들이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기지국 용량 증설 작업을 하고 있다.

KT 네트워크 전문가가 인천국제공항 인근 기지국에서 네트워크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연휴 특별 소통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각 사

SK텔레콤은 고객들의 음성·데이터 이용 패턴을 고려해 고속도로·국도·공원묘지·대형마트·공항 등 트래픽 밀집 지역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와이파이 장비도 추가 설치했다. 트래픽 급증하는 지역에는 이동기지국을 급파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T맵, 옥수수 등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들의 서버 증설·사전 점검 조치도 완료했다.

KT도 추석 귀성과 귀경 인파로 인해 정체가 예상되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 250여 곳, 연휴기간 동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KTX와 SRT 역사 등 450여 곳을 포함한 전국 총 700여 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감시에 돌입한다.

KT는 연휴기간 동안 하루 평균 5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 지역에 구축된 LTE 기지국 9000여식과 3G 기지국 1700여식을 24시간 관제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긴급 복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KT는 명절 연휴 기간을 노린 디도스(DDoS) 공격, '추석 선물', '안부 인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시간 감시와 사전 차단대응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KT는 연휴 기간 중 '올레 TV', '올레 TV 모바일'의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시청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미디어 트래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데이터 처리량 확대와 부하분산 작업을 완료했다.

LG유플러스 역서 추석 네트워크 특별 소통을 위한 비상체계에 들어갔고, 비상 상황에 긴급 대응하도록 마곡 사옥에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을 개소한다.

특히 추석 당일 고속도로·국도 등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나들목, 분기점 및 주요 휴게소, 공원묘지, 지역 행사지역 등 장비증설 및 이동기지국을 운영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명절 특성상 특정 지역의 데이터 트래픽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한 장애 발생에 대비해 중요 거점지역에는 평상시의 2배 수준의 현장요원을 증원,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獨 세계 최대 철도박람회 참가

현대로템, 수주상담 등 해외사업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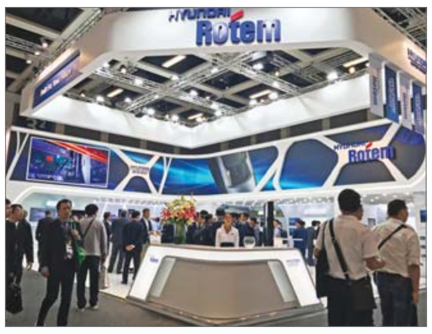
세계 최초 급곡선 주행장치 소개도

현대로템이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철도박람회에 참가해 해외사업 공략에 나섰다.

현대로템은 18~2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철도박람회 '이노트란스 2018'에 참가해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1996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돼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노트란스 박람회에는 전 세계 61개국에서 3000여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 아시아, 미주 철도기관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며 향후 발주 예정 사업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수주 상담을 한다. 또 독일 철도차량 동력시스템 업체 호이트(Voith), 프랑스 철도차량 부품 업체 페이블리 트랜스포트(Faiveley Transport) 등 글로벌 협력사 관계자들을 만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사업 공략을 위해 전시관 내에 트램, 고속철, 무인운전 차량 홍보부스를 각각 마련하고 차량별 수주 실적도 홍보한다.



18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노트란스 2018(InnoTrans 2018)에 참가한 현대로템 전시관 전경.

기술력 홍보를 위해 마련된 부스에선 지난 6월 현대로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급곡선 주행장치가 소개된다.

급속선 주행장치는 열차의 바퀴에 해당하는 주행장치를 개선한 것으로, 주행 가능한 곡선 반경을 기존 25m 이상에서 15m까지 줄여 복잡한 도심에서의 트램 노선 구축에 유리한 것이 강점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플립'으로 싱가포르서 스마트 스쿨 구축

〈디지털플립차트〉

삼성전자, 교실·실험실 등에 도입
최신 통계 동향·자료 실시간 공유

삼성전자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SKIS)에 디지털 플립차트 '삼성 플립(Samsung Flip)'을 공급하며 스마트 스쿨 사업에 앞장섰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에 디지털 플립차트인 삼성 플립을 공급하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는 1993년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의 인가를 받아 개교했다. '삼성 플립'이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스마트 기기로서 학생과 교사 간에 보다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실, 도서관, 실험실 등 학교 여러 곳에 도입했다.

삼성 플립은 55형 UHD 해상도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펜 기능을 통해 직관적인 판서 기능을 갖춘 차세대 디지털 플립차트다. 미러링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있는 수업 관련 자료를 손쉽게 불러올 수 있다. 수업에 필요한 동영상, 이미지 등을 선명한 UHD 화질로 보여줄 수 있어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즉시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 학생들이 필기 부담을 줄이고 보다 집중력 있게 수업시간을 활용하게 한다.

해당 학교의 수학 수업 시간에는 통계 단원의 복잡한 표나 그래프를 이용할 때 교과서 디지털 파일을 직접 불러와 화면에 띄운다. 통계청 등 다양한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최신 통계 동향과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공유하는 등 생동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 시간에는 교과서를 너머 다양한 글로벌 경제 사이트에 접속해 세계 경제 관련 최신 지표와 이슈를 삼성 플립에 띄워 학생들과 토의하고 설명함으로써 수업 흥미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최대 4명까지 동시 필기가 가능한 이 제품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고 바퀴가 달린 이동식 스탠드로 교실과 장소를 옮겨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그룹의 창의 활동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인체 공학 설계를 통해 가로 세로 화면 전환이 가능하고, 스탠드 거치대의 높이조절이 가능해 교사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사용이 가능하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SKT-AT&T 등 글로벌 통신사

5G 장비 연동 검증규격 마련

SK텔레콤은 AT&T, 차이나모바일, 오렌지 등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5G 장비간 연동을 수월케 하는 '5G 장비 연동 검증 규격'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5G장비 연동 검증 규격에는 각기 다른 장비제조사가 개발한 5G 기지국·교환기·단말기간 상호 연동성을 시험하고, 개선점을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분석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이 규격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설계 단계에서 5G장비간 연동성을 시험하며, 최상의 연동 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A사 기지국, B사 교환기, C사 단말기 등 복수의 장비제조사 제품으로 5G망을 구성해도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단말 제조사는 통신장비 연동을 위해 시험해야 할 요소가 줄어든다.

SK텔레콤은 차세대 인프라 방향을 논의하는 NGMN(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의 상호연동 프로젝트 의장사로, 지난 1년간 회원사들과 함께 효과적인 검증 방안을 연구해왔다. SK텔레콤은 올해 4분기부터 이 규격을 바탕으로 상용 장비 연동 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국제 표준 반영도 추진한다. 5G장비 연동 검증 규격은 3GPP가 지난해 12월 정한 5G-LTE 복합 표준(NSA, 논스탠드얼론)에 기반한다. SK텔레콤 등은 연동 시험을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을 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KT, 아프리카TV와 5G 개인미디어 서비스

KT는 국내 개인방송 서비스 1위 사업자인 아프리카TV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G 기반 개인미디어 서비스 제공에 협력한다고 19일 밝혔다.

아프리카TV 본사 사옥에서 열린 '5G 차세대 개인방송 공동사업을 위한 KT-아프리카TV 업무협약식'에는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 미디어사업본부장 유희관 전무,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프리카TV는 누구나 쉽게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국내 1위 개인방송 서비스 사업자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5G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방송 서비스 ▲올레tv와 올레tv모바일에서 아프리카TV의 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한다.

양사는 서울 송파구 아프리카TV 오픈스튜디오 잠실점에 KT 10기가 아레나를 오픈한 바 있다. 올레tv 아프리카TV스타리그(ASL) 시즌5 결승전을 올레tv와 올레tv모바일에서 실시간 중계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왔다. /안병도 기자

협약식에 참석한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좌측부터) KT 이성환 미디어사업담당, 아프리카TV 정찬용 부사장, KT 이필재 마케팅부문장,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이사, KT 유희관 미디어사업본부장, 아프리카TV 이민원 콘텐츠전략사업본부장. /KT